

1. 들어가는 말

한국건축계의 공식적인 국제활동은 두 갈래로 분리되어 UIA 에는 한국건축가협회가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Arcasia 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두 협회 모두 반쪽의 국제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건축가협회는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한국이 속한 이웃의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는 발판이 없어 기반이 허약하다. 건축사협회는 아시아국가들간의 관계에서는 뿌리를 내리고있는 반면 전세계적인 국제관계에서는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의 양협회가 모두 반쪽식의

UIA대회와 협회국제활동

KIRA'S International Activity & UIA

이정근 / 우리계획 건축사사무소
by Lee Jeong-Keun

국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한국 건축계 전체로 볼 때 국제활동의 반신불수 상태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기 전이라도 우선 양 협회간에 국제관계 정보를 공유하며 정기적인 합동위원회를 가져 문제를 좁혀가자는 견해는 양쪽에서 벌써부터 일고 있었지만 잘 실행되고 있지는 않다. 건축가협회로서는 특히 1993년 Chicago UIA 총회에서 제 20차 대회의 한국유치를 위해 중국과 경합을 벌

일 때 다른 아시아국가들의 지원이 필요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의 활동기반이 약한 관계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그 후에 건축가협회에서는 Arcasia 행사에 읍저버 자격으로 대표를 2회에 걸쳐 참가시켰다.

건축사협회는 두 가지 면에서 UIA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를 확보할 필요가 상존하고 있었다. 첫째는 아카시아의 여타 회원국들이 대부분 UIA와 Arcasia에 동시에 가입되어서 지역적인 활동과 세계적인 수준의 활동이 연속성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건축사협회도 UIA에 대해 파악해 둘 필요가 있었다. 둘째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건축가협회와 국제활동에 있어 상호보완적인 협의체를 형성하여 상호 정보교환과 때로는 공동보조를 취하고 협력하는데 있어 UIA 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7월3일부터 6일까지 열린 제19차 UIA 대회 (Congress)와 7월7일부터 9일까지 열린 제20차 UIA 총회 (Assembly)에 참가하게 되었다. 대회행사에는 등록된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고 총회에는 각국 협회의 대표들만이 참석하게 되어 있다. 각국의 대표수는 협회의 회원수, UIA에 내는 회비액수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국건축가협회는 5명의 대표를 참석시키며 투표권으로 다섯표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가협회 대표들중에는 사정으로 인해 참석못하는 분들이 생겨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총회에 참석하여 다행히 전 과정을 몸소 관찰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2. 대회의 구성

전술한 바와 같이 UIA 행사는 대회와 총회로 구성되는데 총회는 전시회, 강연, 워크샵, 영화상영, 사교행사, 건축방문, 도서관매 등 건축관련행사들이 총 망라되어 축제를 이룬다. 공식언어는 개최지의 카탈

로니아어, 스페인어, 불어, 영어, 러시아어 등 5개국어를 사용하며 모든 행사와 관련문서 및 출판물에는 5개 국어를 사용하게 되어있다. 학술발표와 회의 등에서는 5개 국어로 동시 통역이 되었다. 총회는 회의의제에 따라 3일간 계속되었고 후반부에는 차기 회장 및 임원선거, 5개지구의 지구별 책임자인 부회장 선거, 이사국 선출 및 다음의 UIA 대회 개최지 선정 등이 진행되었다.

전시회는 대회주제인 '도시건축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를 전시로 보여주는 주제전과 여타 건축과 관련된 전시 및 대회에 동참하는 기타 전시로 대별된다. 주제전은 대회본부인 바르셀로나 문화센터에서 변화, 주거, 흐름, 용기, 버려진 땅 등 소주제별로 조직되었다. 주목할 만한 전시회는 UIA대회를 기해 만들어진 특별 국제현상 설계경기 입상작품의 전시회, 1985~1994년의 스페인 건축제, 1984~1994년의 유럽건축전 등 이었다.

주제전에서 개개 전시작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흐르는 주제에의 연결성과 통합성에서는 약하지 않으나 하는 인상이다. 찬조 전시들에서는 지난 10년간 유럽에서의 건축활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게 하였다. 기타 바르셀로나에 산재하는 박물관과 갤러리 등에서 주최하는 전시도 대회주제에 호응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점은 존 미로, 달리, 피카소, 가우디 등 바르셀로나가 배출한 예술가, 건축가들의 작품감상은 값진 것이었다. 일부 전시는 토론회(Conference)가 병행하였다.

강연회는 개인과 그룹이 참여하여 소주제별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세계의 57개 건축학교가 각각 교수 학생 등으로 구성된 팀이 도시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건축가들도 동참하여 25개 도시의 현재와 과거를 분석하며 새로운 제안을 하였다. 11개의 특별 전문주제를 다루는 워크샵이 진행되었는데 예를 들면, 건축과 소통이란 주제 아래 건축잡지관계 연구가, 편집자, 비평가 등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그 외에 공향과 도시, 도시의 접근성, 의미론과 건축 등이었다. 영화와 건축이란 제하에 공간, 도시 영역, 경계, 빈 공간 등의 테마를 걸고 10개의 영화가 상영되고 토론이 벌어졌다. 사회행사로서는 환영 카테일파티, 개회식, 수상의 날, 폐회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환영파티는 2일 저녁 가우디가 설계한 Parc Guell에서 있었는데 가우디의 조경 건조물을 배경으로한 연출을 시도했다.

개회식은 3일 카탈로니아 음악의 전당에서 스페인 국왕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가이면서 동시에 프로급의 음악연주가들이 성악, 피아노, 재즈 등을 연주하여 정연하면서도 가벼운 분위기로 끌고 나갔다. 4일밤 몬주익 언덕의 올림픽아레나에서 있었던 수상의 날 기념식에는 야외 광장의 분수와 조명 등을 이용한 야외분위기에서 스페인의 Rafael Moneo에게 UIA금상이 주어지고 그 밖에 UIA에서 조직한 각종 상이 주어졌다. 6일 밤에 있었던 폐회식 행사는 캄캄한 바르셀로나의 해변가에서 모래사장에 일정 간격으로 촛불이 꽃혀지고 무대에서 춤곡이

연주되는 가운데 별다른 의식없이 진행되었다. 파도소리와 어둠속에 그간 행사에의 열정과 만감은 서서히 침잠되어 갔다.

총회는 UIA회원국이 3년에 한번씩 모두 참여하여 의제를 다루는 공식회의이다. UIA가맹국은 106개국인데 현재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국가는 84개국이며 올해 총회 참석국가는 70개국이다.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바르셀로나 해안에 새로 개발된 연육교로 연결된 시민위락 쇼핑단지인 port vell에서 열렸다. 단상에 회장, 직전회장, 사무국장, 회계총무 및 5개지역을 대표하는 부회장 5명 등 사무국 구성원이 자리하고 홀에 방사형으로 각국의 대표들의 좌석이 알파벳 순으로 나열되었다.

각국은 국민소득, 회원수 등등으로 산출된 식에 따라 회비의 액수가 산정되고 이에 비례한 대표수를 가지며 이는 투표할때 투표수에도 직결된다.

각 지역별로 이사국이 선출되어 이십여 명의 이사와 사무국이 합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는 일년에 4번씩 이사국간에 돌아가며 유치하게 되어있다. 회의는 의제설정과 사무국구성원들의 인사와 활동보고에 이어 재정보고가 있었다. 3년간의 예산은 1200만 프랑 정도이며 이는 회비와 각종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UIA활동을 확고히하고 넓히기 위해서는 해마다 필요예산이 증가하므로 회비납부금을 올리려해도 각국의 가맹협회로부터 반발이 심하고 회비산정식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은 회비를 많이 내는 12개국중의 하나이며 투표권도 5표를 행사한다. 실질적인 UIA활동의 핵심도 각종 활동 프로그램으로 현재 30여개가 가동중이며 활동프로그램의 유효성은 내규에 규정된 활동규준을 상회하는 활동내용에 따라 인정 받는다. 테마에 따라 각 회원국 또는 복수의 회원국이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회장단 5개 지역을 대표하는 회장단 및 이사선출이 있었다. 이사는 임기 6년, 나머지는 3년으로 되어있다. 회장에는 제 3지역 부회장인 멕시코의 Sara Grinber가 당선되고 아시아국이 속한 제 4지역에서는 다음 UIA대회 개최국인 중국의 도전을 물리치고 일본의 Ren Suzuki가 부회장에 당선되었다. 이사국 선출에서는 한국의 조재원 가협 국제위원장이 호주, 중국대표와 함께 21년만에 이사로 선출되었다. 이사국은 UIA의 모든 활동기조와 내규를 조정하고 결정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건축가협회는 UIA를 매개로 한 국제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2002년에 개최될 제 21차 UIA대회와 22차총회 개최지 선정에서는 독일의 베를린이 이태리의 베니스, 프로렌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호주의 멜본 등의 경합을 물리치고 결정되었다.

선거 바로 직전에는 회칙개정이 있었고 UIA의결사항이 토의를 거쳐 통과 되었다. 1996 UIA 의결 안건은 건축실무 전문성에 대한 UIA표준내규, UIA/UNESCO건축교육현장, 일반정책 대강보고서 등이다.

3. 대회 주제 : 도시건축의 현재와 미래

General Reporter 역을 담당하는 Ignasi de sola Morales가 주제를 발표하고 대회를 총괄하도록 되어있다. 주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세계 각국에서 일고있는 도시의 급격한 팽창과 발전은 인구와 생활내용, 기술과 통신, 소비패턴 등에서 가히 전대미문의 변형을 끌어내고 있다. 기존의 도시조직도 이전에는 상상 할 수 없던 속도로 변형과정을 겪으며 안으로는 이제까지 잘 쓰이던 건물이 무용지물이 되기도하고 새로운 것도 금방 옛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오늘날 가속적인 도시발전의 역동성에 내재하는 전략, 이해관계 및 논리들의 복잡성을 기초로 하여 주요 사항의 결정들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근래에 이중적인 현상을 목도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영역의 변형에 관여함으로써 탈출구를 찾는 건축가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의식적으로 형태창조의 직설적인 분야에 안주하거나 문화적으로 중요한 대상물을 생산하는 쪽으로 경주한다. 이 두 노선의 양극사이에서 상당수의 결정들이 건축이 공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비껴나간다. 이러한 작업들이 일어나는 물리적인 공간, 대도시의 활동들을 담는 거대한 용기, 주거수요를 반영하는 거대한 용적들, 공업과 상용의 건물들이 문화성을 상실하고, 진부한 때로는, 우리를 허탈하게하는 모습을 가진다.

진정한 건축성이 결여된 이 모든 양적인 발전은 건축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경험들이 시장원리에 따라 재편성된 결과이다. 금세기의 가장 활발한 건축활동기에 제시된 모형들은 건축가들에 의한 진지한 고찰을 거치지 않고 교묘하게 재구성되었다. 표준화된 해답의 반복뒤에 감추어진 일반적인 형태들은 명확하게 직조되지 않은 과정들을 거짓으로 엮는다. 따라서 주거와 일과 놀이공간 그리고 도시 하부구조는 완전히 다른 의미와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20세기 초에서부터 형성되어온 건축 이데올로기와 21세기의 문턱에 위치한 오늘의 대도시 상황의 새로운 조건사이에 존재하는 정신착란은 건축에 있어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가능성의 기초이기도 하다. 대형 프로젝트의 방법과 문제, 건물들의 변화에 동시에 요구되는 일시적인 조건들, 동일한 점에 수렴하는 프로젝트의 병치와 파편화, 새 기술에 의해 창조되는 시설, 공간지각의 기본 조건으로서의 시간의 체험, 새로운 용도와 사회의 식에 부응하는 공간의 설계, 변형을 이겨내고 이에 재적응하는 건축기술 및 도시구조 등은 공공 행정조직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없는 것이다.

오늘의 건축이 이러한 대도시 상황에서 일말의 발언권이라도 가질라치면 준비해야 하는 점은 이 과정을 조절 통제하는 가능성과 어떤 집합적인 가치체계에 근거한 이성적인 논리의 정도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UIA 바르셀로나 96대회의 목표는 현대도시의 변형 속에서 건축의 역할에 대해 다음 다섯가지 분야에 걸쳐 논의하는 것이다.

●변 화(Mutations)

오늘 도시들의 변형의 내용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

●주 거(Habitation)

대도시 상황이 빚어내는 새로운 거주 모형

●흐 름(Flows)

현대 건축과 도시에서 교통, 정보의 수단과 매체의 영향

●용 기(Containers)

도시주거의 사적 및 공적 생활을 구성하는 새로운 의식들을 다루는 건축의 형태

●빈 땅 (Terrain vague)

도시 조직속의 버려진 땅과 이들을 변형시키는 도시 프로젝트

4. 바르셀로나와 UIA대회

바르셀로나는 UIA대회를 위한 천연의 배경이었다. 중세의 고도가 잘 보존되어 있는데다 근세의 도시구조와 현대의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들이 발전의 연속선상에 조화를 이루고 있다. 피카소를 비롯하여 달리, 미로 및 가우디 등 불세출의 예술가, 건축가들이 태어난 이 곳은 카탈로니아 지방의 축복받은 땅이다. 현대생활을 수용하는 시설물들을 기존의 도시조직에 어떻게 접속시켰나 하는 것만 보아도 이들의 디자인 수준을 알 수 있고 문화의 질을 가늠하게 한다. 이들이 대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 도시조직과 섞어 놓아서 행사를 찾아다니는 자체가 참여이며 대회 주제인 도시건축의 현재와 미래라는 내용을 몸으로 읽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대회장소들이 하도 흩어져 있어서 찾아다니는 데 힘이 빠지고 시간소비하고 막상 도착하면 소위 유명인사들이 강연하는데는 장소가 모자라 못들어가고 하는게 불편한 만큼 다른 면으로 보상을 해 주는 바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막식, 폐막식, 환영식, 시상식 등의 행사도 바르셀로나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인공적인 도시공간과 자연의 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삶의 경험속에 침투하게하고 일체화시키는 연출의 전략은 가히 천재적인 예술가와 장인들의 고향이기에 나올 수 있는 발상이라고도 생각되었다.

각개 행사의 국부적인 연출의 기술적인 면에만 한정하지않고 행사 전체를 도시공간과 함께 섞어내는 감성은 천부적이고 내생적이라 할 수도 있겠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드는 시간과 이렇게 해서 잃어버리고 미처 찾아내지 못하는 정보의 양과 질을 가치로 환산했을 때, 이렇게 소모하고 잃는 과정에서 도시공간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새로운 각성의 가치와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

고 손실을 따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2002년 UIA대회 유치에 대해 경합하던 도시들이 내세우고 있는 점들의 하나는 대회행사를 집중시켜 편리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편리성 위에 무엇이 얻어지고 잃어버릴 수 있는지는 대회 조직의 집행 시점에서 밝혀질 것이다.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비좁은 장소에서 등록하는데만 가까운 시간을 많이 버리게 한 것이라든지 여러 정보들이 쉽게 이방인들에게 곧바로 닿게 할 수 있는 운영방안 등에서는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다고 보아야겠다. 특히 총회 장소의 영성향 꾸밈은 회의 분위기를 산만하게 하고 회의의 귀함과 중요성에 대한 감각을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대회행사들은 빠르는데 비해 총회나 등록 및 정보전달 등 사무관련 행사의 조직과 장소적 배려에서는 낙제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5. 한국 건축계의 국제활동의 전망

국제활동은 인간의 모든 활동중의 하나이다. 이것이 인간의 여타 활동들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면 문화권이나 국가라는 인위적 울타리로 둘러싸는 집단을 집합의 개체로 하여 상호 접근하는 것이다. 활동 일선에 있는 개인은 인간 개체가 아닌 국가나 문화권이라는 집합적인 개체라는 정체성을 뒤집어 쓰고 움직이게 된다. 모든 활동이 그렇듯이 여기에도 시간과 경비, 개인적인 희생 등이 투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투자에 비해서 투자의 효과가 즉시 눈에 띄게 보이는 것도 아니다. 국제활동은 꽃나무가 아니다. 그 문화의 꽃을 피우게 하는 밭의 거름일 뿐이다. 몇몇 사람의 활동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투자이고 가치없는 활동이 된다. 이것은 꽃밭의 밑거름이 되게끔 파급되어야 하고 호수의 잔잔한 파문처럼 조용히, 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건축인들의 마음에 와 닿아서 변화의 맥박이 되어야 한다.

한국 건축계의 국제활동은 사협회와 가협회의 그것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상태이며 이 분리된 상태를 묶어주는 내적인 기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근래에 건축 3단체는 이제까지 명목상으로 유지되어오던 형식적인 정기적인 면담의 기능을 탈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정기적인 교류와 구체적 사업의 공동참여를 통해서 협력체제를 현실화하고 있다. 이 중의 하나가 국제활동 분야이다. WTO, UR 등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출범시킨 바 있다. 국제관계 정보의 공유를 위한 상호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사안에 대한 하나의 통합된 대표성과 정체성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사협회와 가협회가 하나의 단체로서 통합되지 않는 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양 협회의 국제위원회가 정례화된 대화의 통로를 마련하여 상호 협조체제를 갖추고 대외적으로 통합된 목소리와 행동을

지향하는 것이다. 가협회에서 3년전 UIA대회 유치활동을 할 때 사협회에서는 아카시아 활동이 밑거름이 되어서 적극 도운적이 있으며 이번 UIA대회에서도 한국이 상임이사국에 피선되도록 아시아쪽의 기반을 이용해 도운 바 있다. 불편하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 점을 잘 극복하고 운영의 묘를 갖추면 오히려 상호보완적으로 더 큰 힘을 보태게되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한쪽의 국제위원들이 다른 협회에서 국제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목표를 설정하는데 매우 빠른 진도를 보인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면 타 단체의 일부 국제위원을 상호 교환하며 엇갈려 활동하게 하면 사사로운 체면보다는 더 큰 목적을 위해 합심하기가 쉬울 수도 있다.

국내적으로 합일점이 생긴다해서 그것이 대외적으로 그렇게 쉽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상대들은 이러한 특수한 해법을 싫어 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도 있다. 가령 이번 UIA상임이사국 선출 때 사협회가 가협회를 도와서 당선에 일조가 되었다 할때 4지역에 속한 아시아 국가를 낙선시키게 되었는데 그쪽에서는 아카시아 회원국 조직이 비아카시아 회원조직을 도와서 다른 아카시아 회원국을 패배시켰다고 나무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 단체는 상호 배타적인 단체가 아니고 상호의 영역을 서로 포함하는 단체라는 것과 공식화된 협의체제를 통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분할된 활동영역을 가진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해야하는 노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가협회는 UIA 무대에서 아시아국가의 공동이익과 활동목표를 추구하는데 사협회와 협력한다는 점을 아카시아 회원국에게 이해시켜야하며 실제로 국제활동의 목표를 그렇게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협회는 가협회의 UIA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UIA 목표를 각 지역별로 실천하는데 있어 상호보완적인 파트너라는 점을 UIA 회원국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양 협회는 한국 건축계를 살찌게 한다는 첫째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현명하게 협력하여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같이 국제무대에서 힘차게 뻗어나가야 할 것이다. 양 단체 이외의 건축학회나 건축역사학회 또는 그 밖의 단체와의 상호 협력문제도 이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